

<2019 서울시 7급 채용 가답안 B책형 기준>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④	②	①	②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③	②	④	④	②	②	④

1. <보기>의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왜인들이 세건선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의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 ①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나 많은 동인이 처형당했다.
- ② 4~5천 명의 왜인들이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 ③ 도원수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을 명에 파견하였다.
- ④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하였다.

1. 정답 ①

[자료 분석]

(가) 을묘왜변은 1555년(명종 10) 왜구가 전라남도 강진·진도 일대에 침입해 약탈과 노략질한 사건이다. (나) 1592년(선조 25)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해설]

① 정여립 모반 사건은 1589년 10월에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였다 하여, 3년여에 걸쳐 그와 관련된 1,000여 명의 동인계(東人系)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기축옥사)

[오답 피하기]

- ② 삼포왜란은 (가) 이전인 1510년(중종 5) 삼포에서 일어난 일본 거류민들의 폭동 사건이다.
- ③ 강홍립이 명의 요청에 따라 원군으로 파병된 것은 (나) 이후인 광해군 대이다.(1619)
- ④ 『훈몽자회』는 최세진이 어린이들의 한자(漢字) 학습을 위하여 지은 책으로,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이래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2. <보기>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A)를 주어 자손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B)를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C)를 지급하였다.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을 지급하였다. 한편 왕실에는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D)를 지급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을 지급하였고, 사원에는 (E)를 지급하였다.

- | | | |
|---|-----|-----|
| | ㉠ | ㉡ |
| ① | 구분전 | 공해전 |
| ② | 민전 | 내장전 |
| ③ | 군인전 | 공해전 |
| ④ | 한인전 | 내장전 |

2. 정답 ①

[자료 분석]

A는 공음전, B는 한인전, C는 군인전, D는 내장전, E는 사원전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 ㉠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3. <보기>의 그림들의 제작시기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ㄴ. 안건의 「몽유도원도」
 ㄷ. 장승업의 「삼인문년도」
 ㄹ. 정선의 「금강전도」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 ③ ㄴ-ㄷ-ㄱ-ㄹ ④ ㄹ-ㄴ-ㄱ-ㄷ

3. 정답 ③

[정답 해설]

- ㄴ. 몽유도원도는 안건이 1447년(세종 29)에 그린 산수화로 비단 바탕에 수묵담채로 그렸다. 안평대군이 꿈에 도원에서 본 광경을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 ㄹ. 금강전도는 정선이 만 58세 때인 1734년(영조 10) 겨울 만폭동(萬瀑洞)을 중심으로 금강내산(金剛內山)의 전체 경관을 그린 것이다.
- ㄱ. 동궐도는 조선 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 창덕궁과 창경궁을 상세하게 그린 궁중회화로, 19세기 전반(1828~1830 사이 시기로 추정)에 제작되었다.
- ㄷ. 삼인문년도는 조선 말기의 화가 장승업이 그린 고사 인물화로,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4.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들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 ② 이들의 상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에서 화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 ③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 ④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4.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고려 말 왜구와 흉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최영은 홍산대첩(1376), 이성계는 황산대첩(1380) 때 활약하였다.
- ② 고려는 1377년(우왕 3)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은 중국 강남의 상인 이원을 자신의 집에 모셔두고 집요하게 설득하여 수십 일에 걸쳐 염초취술(화약의 제조법)을 배웠다. 이후 그가 화약의 주원료인 염초의 제조에 성공한 뒤 그 효력을 시험하고 여러 차례 조정에 건의하여 비로소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 ③ 왜구는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했으며 이로 인해 도참설에 의거 한양 천도가 논의되기도 했다.

[오답 피하기]

- ④ 고려 말 일본은 분열기(남북조)로, 막부의 통제력이 약한 변방 지역을 중심으로 왜구가 성장하였다.(막부의 통제 X)

5.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심문자: 작년(1894) 3월 고부 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그때 고부 군수(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심문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하였느냐?
 전봉준: 고부 민란 조사 책임자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며 체포하고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심문자: ㉡전주 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나?
 전봉준: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으니,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전봉준 공초」(발췌요약)-

<보기 2>

ㄱ. ㉠: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하였다.
 ㄴ. ㉡: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였다.
 ㄷ. ㉢: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ㄹ. ㉣: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 ① ㄱ, ㄹ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 정답 ②

[자료 분석]

㉠은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 ㉡은 전주 화약, ㉢은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답 해설]

ㄴ. 청·일 양군이 조선에 상륙하면서,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태 악화를 우려한 정부 측은 폐정 개혁을 약속하고 동학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1894. 5)

ㄷ. 2차 봉기 당시 농민군은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합세하여 북상하였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와 대치하였다. 이 전투에서 1주일간 50여 회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우세한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를 일으킨 것은 2차 봉기 시기이다. 1차 봉기는 남접 중심(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으로 일어났다.

ㄹ. 을미사변이 아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관한 내용이다. 전주 화약 체결 이후 정부는 청과 일본에 철군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에서 청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일본군 3,000명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포위하고 정부군을 무장 해제하였다. 청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일본은 아산만에서 청의 함대를 기습 공격하였다.(청·일 전쟁)

6.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6.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1910년 체결된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정답 해설]

- ② 1910년 발표된 칙령 제318호에 의해 ‘대한제국’이란 국호를 지역명인 ‘조선’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 ③ ‘조선총독은 천황에 직예해서 조선을 관할’한다고 규정해 일본 내각 총리대신과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 육해군대장 중에서 임명되며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입법·사법권은 물론 육해군을 통솔하여 한국방비의 군사기능을 관장하였다.
- ④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범죄즉결례(1910)와 경찰법 처벌 규칙(1912)이 시행되어 헌병이 정식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긴급칙령> 제324호, 1910. 8. 29)에서 천황의 ‘명령’인 칙령과 천황에게만 책임지는 총독의 제령에 의하여 조선을 통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시행되는 칙령은 하위법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제국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은 조선 내에서는 물론이고, 본국에서조차도 “내각총리대신을 거쳐”라는 절차만이 있을 뿐 내각이나 의회의 승인이나 견제를 받음이 없이 오로지 천황의 재가만을 필요로 할 뿐이었다.

7. <보기>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의 충성파들은 약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 ①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하였다.
- ②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 ④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7.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 사건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해설]

- ② 4·19혁명 당시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시위가 격화되었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가세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유신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민청학련사건 이후 활발해진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결집하기 위해 1974년 11월 27일 이병린, 함석헌, 천관우, 김홍

일, 강원룡, 이회승, 이태영의 7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야인사 71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발족시키고 「민주회복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현행 헌법은 최단시일 안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 민주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반정부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역·구속·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 ③ 1979년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한 내용이다.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에 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직 정치 가처분과 의원직 박탈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이 사건은 유신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④ 서울의 봄은 1980년 신군부에 저항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신군부의 정권장악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점차 민주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크게 일어났는데, 5월에 접어들자 학생들은 최규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신군부의 정권장악 의지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다. 5월 14일과 15일 서울 지역 대학생들은 계엄령 상황임에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신군부는 계엄령 전국 확대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 등을 통해 이러한 민주화 세력의 요구를 억압했다.

8.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은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 ②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칭한다.
- ④ 숙종 20년(1694)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8.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경신환국은 1680년 허적의 유약 사건과 삼복의 변(남인 정권의 영수이던 허적의 서자 허견이 종실 복선군과 역모를 했다고 고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서 쫓겨나 처형되고 유배된 사건)으로 인해 남인이 실각하게 된 사건이다. 이후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송시열 중심의 노론과 윤증 중심의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으로 집권한 봉당은 남인이다. 경신환국은 당시 집권하던 남인이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사건이다.
- ③ 기사환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건은 1689년(숙종 15) 후궁 소의 장씨 소생을 원자로 정호(定號)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장악한 사건이다.
- ④ 폐비 민씨(인현왕후)는 서인 집안 출신이었다. 폐비 민씨의 아버지인 민유중은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다시 조정에 들어와 공조판서·호조판서 겸 선혜청·당상·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서인 정권을 주도하였다. 또한 갑술환국(1694)은 폐비 민씨의 복위(폐비X)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 사건이다.

9. 조선시대 노비 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 수는 솔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
- ④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9.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외거노비는 주인집에서 독립하여 살면서 주인집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 이들 노비는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경영을 맡은 대가로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대여받기도 하였다. 여기서 거둬들인 수확물은 노비들의 몫이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시대에 사노비에게는 원칙적으로 국역 부담이 없었으나 때때로 잡역이나 군역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중 군공을 세운 이들이나 무예에 재능이 있는 자를 면역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에 종사했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 ② 조선 시대에는 주인이 자신의 노비에게 사형(私刑)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비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지어는 노비가 죄를 지은 경우 주인은 이를 관에 고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노비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이 무한정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비를 관청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죽이거나 노비에게 참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노비 소유주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 ③ 조선 시대의 사노비는 공노비에 비하여 그 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사노비 중에서는 솔거노비보다 전호적인 외거노비가 월등히 많았다.

10. <보기>는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나) 서울의 혜화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다)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자 연설했다.

(라) 미 군정은 좌·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을 구성했다.

(마)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2차 마·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 ① (가)-(나)-(다)-(라)-(마)
- ② (가)-(라)-(마)-(나)-(다)
- ③ (다)-(가)-(라)-(마)-(나)
- ④ (마)-(가)-(다)-(나)-(라)

10. 정답 ③

[정답 해설]

- (다)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에 이루어졌다. 이승만은 이를 통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가) 좌·우 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이 원칙에는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몰수·유조건 몰수·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라) 남조선 입법 의원은 1946년 12월에 조직되었다. 의장은 김규식이 맡았다.
- (마) 제2차 마·소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에 재개되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나) 여운형은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에게 저격을 당해 서거하였다.

1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사의 법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손이 된다. (.....) 고조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에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범칭으로 ㉠득난(得難)이 되었다.

- ①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 ② 대귀족으로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
-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
- ④ 최고 귀족인 왕족과 왕비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11.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의 ‘득난’은 최치원이 지은 「성주사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문」에 등장하는 용어로, 신라의 6두품 계층을 의미한다.

[정답 해설]

① 갈문왕은 왕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신라 최고 성씨집단의 씨족장, 혹은 가계(家系)의 장에게 준 칭호이다. 왕과는 엄연히 구별되었지만 지배세력 내에서는 왕에 준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갈문왕제는 무열왕 대에 폐지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백제에 대한 설명이다. 백제의 왕족은 부여씨였고, 8성의 귀족 가문은 진씨 · 해씨 · 국씨 · 목씨 · 사씨 · 연씨 · 백씨 · 협씨였다.(진씨와 해씨가 왕비족)
- ③ 백제에 대한 설명이다. 신라의 귀족 회의는 화백 회의이다.
- ④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삼국지』에 의하면 고추가는 왕의 종족(宗族)과 전 왕족, 왕비족의 수장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12.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ㄷ-ㄹ-ㄱ
- ③ ㄷ-ㄹ-ㄴ-ㄱ
- ④ ㄹ-ㄷ-ㄴ-ㄱ

12. 정답 ③

[정답 해설]

ㄷ. 1952년 발췌개헌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개헌 내용이었다.

ㄹ. 1972년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과 대통령의 6년 임기,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영구 집권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ㄴ. 1980년 8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 7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 행복 추구권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ㄱ. 1987년 9차 개헌(현행 헌법)에 대한 내용이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헌법 재판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13. <보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9성을 개척했다.
 ㄷ.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영토로 편입시켰다.
 ㄹ.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ㄱ-ㄴ-ㄹ ④ ㄹ-ㄴ-ㄷ-ㄱ

13. 정답 ③

[정답 해설]

- ㄷ. 거란의 1차 침입(993, 성종) 당시의 모습이다. 당시 서희는 거란장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ㄱ. 거란의 3차 침입 당시의 모습이다. 거란은 현종이 입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강동 6주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들어 고려를 침입하였다. 하지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강동 6주의 하나인 귀주에서 거란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귀주대첩, 1019)
- ㄴ. 여진과의 1차 충돌에서 패한 고려는 윤관의 건의에 따라 특수 부대인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 정벌을 준비하였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을 북방으로 쫓아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았다.(1107)
- ㄹ. 강화도로 천도하고 대몽항쟁을 전개하던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14. <보기>의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太郎), 스티븐스(Stevens)
 (나) 경인 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 ① (가)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② (나)의 3개의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했다.
 ③ (가)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④ (나)의 철도 건설에 토지·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14. 정답 ③

[자료 분석]

- (가) 일본인 메가타(재정)와 미국인 스티븐스(외교)는 1904년 8월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의해 대한 제국의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나) 경인선은 1899년, 경부선은 1905년, 경의선은 1906년에 완공된 철도이다.

[정답 해설]

- ①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각각 대한 제국의 재정과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다. 메가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화폐 정리 사업(1905)을 실시하기도 했다.
 ② 경인선은 처음에는 미국인 모스가 그 부설권을 따냈으나 결국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경의선은 프랑스인 그릴르(Grille)가 부설권을 따냈으나 재정 부족으로 부설권을 상실하면서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경부선 부설은 본래부터 일본이 진행)
 ④ 일본은 철도 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토지를 약탈하였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이에 일부 의병은 철도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③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1904년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의해 대한 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하였다.

15.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귀신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찌하겠는가.

- ① 동천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 ②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 ④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15.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 당시 을지문덕이 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의 일부이다.

[정답 해설]

② 수 양제는 113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요동성에서 고구려군의 저항에 막혔다. 이에 우중문 등에게 30만 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가는 길목의 식량을 없애고, 평양 근처까지 왔다가 퇴각하는 수의 군대를 살수(지금의 청천강)에서 크게 물리쳤다.(612)

[오답 피하기]

- ① 이 전쟁은 고구려 영양왕 때 일어났다.
- ③ 수 양제가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 ④ 백강 전투(663)는 백제 멸망 이후 백제 부흥 운동 과정에서 있던 사건으로, 살수대첩과는 관련이 없다.

16.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해는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 ② 제2대 무왕은 산둥지방의 등주(登州)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 ③ 제3대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그리고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 ④ 제5대 성왕 때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6.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지금의 지린성 동모산 기슭에 건국한 나라이다.
- ②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장문휴로 하여금 수군을 거느리고 산둥 반도를 공격하게 하였으며, 요서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 ③ 문왕은 755년경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으며, 785년경에는 다시 수도를 동경용원부로 천도하였다.(5대 성왕 때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천도)

[오답 피하기]

④ 성왕이 아닌 선왕 대의 역사적 사실이다. 9세기 전반 선왕 때에 이르러 발해는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시켰으며, 영토를 확장하여 요동 지역까지 이르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였고, 지방 행정 체제도 완비하였다. 이 무렵 당은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바다 건너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의미로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17.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에 이르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흥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 ①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 ②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

17.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왕’에 해당하는 인물은 공민왕이다. 1361년 (공민왕 10) 11월 흥건적의 제2차 침입 때 공민왕은 위기를 피해 복주(지금의 경상북도 안동)로 피난하였다.

[정답 해설]

- ① 자제위는 1372년(공민왕 21) 왕권을 강화하고 신변 호위 및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설치한 관서이다. 공신과 고위 관직자의 자제를 선발하여 배속시켰다.
- ② 공민왕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1366)
- ③ 공민왕은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1356)

[오답 피하기]

- ④ 박위의 쓰시마 정벌은 창왕 때인 1389년의 일이다.(이종무의 쓰시마 정벌은 조선 세종 때)

18. <보기>의 인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니, (㉠)이(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 ①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
- ② 성학집요와 격몽요결등을 집필하였다.
- ③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

18. 정답 ②

[자료 분석]

『기자실기』는 이이가 1580년 기자의 행적을 정리해 편찬한 책이다.

[정답 해설]

- ② 『성학집요』는 1575년(선조 8)에 이이가 제왕(帝王)의 학(學)을 위해 선조에게 지어 바친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격몽요결』은 1577년(선조 10) 이이가 학문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편찬한 책이다. 덕행과 지식의 함양을 위한 초등과정의 교재로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학자들에게 『천자문』, 『동몽선습』, 『훈몽자회』 등과 함께 널리 읽혀졌다.

[오답 피하기]

- ① 이황에 대한 설명이다. 백운동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안향을 제사 지내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소수 서원이 되었다.
- ③ 이이의 학설은 조헌·김장생 등에 의해 계승되어 주기론적인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영남학파 형성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황이다.
- ④ 서경덕에 대한 설명이다. 서경덕은 1519년 조광조에 의해 채택된 현량과에 수석으로 추천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개성 화담(花潭)에 서재를 세우고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1531년 어머니의 요청으로 생원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했으며 1544년 김안국 등이 후릉참봉(厚陵

參奉)에 추천하여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계속 화답에 머물며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는 등 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또한 서경덕은 송대의 주돈이·소옹 및 장재의 철학사상을 조화시켜 독자적인 유기철학(기일원론)을 수립하였다.

19.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① ㉠은(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 ② ㉡은(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 정답 ②

[자료 분석]

㉠은 박지원, ㉡은 정약용에 해당한다. 『마과회통』은 1798년(정조 22) 정약용이 편술한 마진(홍역)에 관한 의서이다.

[정답 해설]

② 정약용은 토지의 공동 경작 및 수확물을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신유사옥(신유박해) 당시 유배형에 처해진 인물로는 정약전(흑산도)과 정약용(강진)이 대표적이다.
- ③ 서얼 출신으로 소비를 통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을 주장한 것은 박제가이다.
- ④ 『반계수록』은 유형원의 저서이다. 정약용의 저서로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이 대표적이다.

20.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 태백광노(太白狂奴) 또는 무치생(無恥生)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함

- ① ‘훈’과 ‘백’ 중 ‘훈’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윤세복이 만주에 세운 동창학교에 참여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④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20.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다. 박은식은 ‘태백광노(太白狂奴)’나 ‘무치생(無恥生)’이니 하며 자신을 낮춰 말했다. 태백산, 즉 백두산이 있는 나라의 사람으로 망국을 슬퍼하며 미쳐서 돌아다니는 노예(태백광노)로 자처하고, 나라를 잃고도 살아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무치생)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였다.

[정답 해설]

- ①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교(國敎) 국학(國學) 국어(國語) 국문(國文) 국사(國史)는 국훈(國魂)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錢穀) 군대(軍隊) 성지(城池) 함선(艦船) 기계(器械) 등은 국백(國魄)에 속하는 것으로 국훈의 됄됨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훈은 살아 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 ② 동창학교는 1911년 만주에 설립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한 민족계 학교이다. 교장은 이원식, 교사에는 박은식, 이극로, 신채호 등이 있었다. 학생은 100여 명으로 대부분 이주 동포의 자제들이었다.
- ③ 이승만이 탄핵되고 1925년 의정원에서 박은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④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31년 조직한 단체이다. 박은식은 1925년 사망했기 때문에 1931년 조직된 한인애국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